

- 이와 함께, 분기마다 김동수 은행장이 ‘히든챔피언 CEO 간담회’, 전략금융본부장(부행장)이 ‘히든챔피언 성장전략 워크숍’을 개최하여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.
- 수출입은행은 1월 25일부터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공모에 들어가 우선 을 상반기까지 60개 기업을 선정 한 뒤, 하반기에 40개 기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.
 -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·중견기업으로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출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. (문의: 02-3779-5293, 5296)
-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“보다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히든챔피언이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실시하게 됐다”며 “기술력과 열정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들이 많이 신청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, 즉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- ‘한국형 히든챔피언’이란 수출 1억불 이상이고 지속적인 세계시장 지배력을 갖는 중소·중견 기업을 말한다.
 - 수출입은행은 2019년까지 한국형 히든챔피언 300개를 육성해 연간 수출 480억불, 고용 49만명, GDP 256억불, 세수 5,000억원을 새롭게 창출한다는 계획이다.
- ※ 헤르만 지몬 교수는 “히든챔피언”을 “세계시장 1~3위이고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매출액 40억불 이하 기업”으로 정의

문 의	히든챔피언육성팀장	손영수 (☎02-3779-5291)
	홍보실 공보팀장	신유근 (☎02-3779-6065)

수출입은행,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공개모집해 총 1조원 지원
—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체결하는 등 ‘전문 네트워크’도 구축

- 한국수출입은행(www.koreaexim.go.kr 은행장 김동수)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을 공개 모집하고, 이 중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총 1조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“2010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계획”을 1월 20일 발표했다.
- 수출입은행은 총 1조원 중 1,000억원은 기술개발자금으로, 300억원은 해외시장개척자금으로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.
- 또한, 수출입은행은 환위험 컨설팅, 국제법률자문, 해외마케팅 등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‘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전문 네트워크’를 구축하기로 하고, 첫 번째로 1월 19일 기술보증기금(이사장 진병화)과 유망수출기업 발굴·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-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고, 수출입은행은 기보의 평가결과 및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기업을 선정하고, 기술개발자금도 제공하게 된다.

(사진 있음)